

전 남

‘돈 먹는 하마’ 전략 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마련 또 수익 퍼붓나

2005년부터 152억원 쏟아붓고 적자 못 면해

나주시가 ‘돈 먹는 하마’로 불리우고 있는 ‘영상테마파크’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6억7000여만원을 들여 201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강제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또한 영상테마파크내에 전시장과 숙박 체험시설 등을 갖춘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주 영상테마파크’의 경우 지난 2005년 80억원을 들여 ‘주몽’ 세트장을 건립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2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태인데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의사결정을 전 단계적으로 채용된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 추상적인 자료를 근거로 전혀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은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청 K씨(6급)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된 A 팀장이 그동안 전임 시장의 신임을 바탕으로 ‘영상테마파크’ 업무를 전담, 수익창출이 기대되지 않는데도 재임용 등 자리보존을 위해 연속성 있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상테마파크’의 경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민선 4기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극심한 마찰을 빚었

다. 또한 나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해 왔던 ‘영상테마파크’를 갑자기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 업체에 위탁하는 등 관련 정책 결정이 일반적으로 이뤄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주차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영상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는 죽산보와 영상강 생태공원 등과 연계하면 영상강테마파크가 유명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 영상테마파크’는 드라마 ‘주몽’이 인기리에 방영될 당시 반짝 특수를 누리다가 지난 2008년부터 J건설 측이 설립한 별도의 법인에 운영을 위탁, 현재는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1일 평균 250여명 가량으로 급격히 줄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순천단감·광양 고로쇠

지리적 표시 표장 출원

순천·광양지역 특산품인 단감과 고로쇠수액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센터장 조휴석)는 지역 특산품인 순천단감과 광양백운산 고로쇠 수액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기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 등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센터는 순천단감과 광양백운산 고로쇠 수액에 대해 단체표장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한은 물론 권리 확보(서류 작성 및 출원 완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만료(10년)시까지 최종 결과물을 토대로 단체표장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월 1회 이상 방문을 통한 자문 역할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조휴석 센터장은 “지리적 단체표장을 출원할 경우 전남 동부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장흥 ‘천관산 관광시장’ 문 열어

110개 점포 수산물 특화

장흥군은 18일 기관·사회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관산 관광시장’(사진) 개장식을 가졌다.

남해안을 낀 남부 5개 읍·면의 수산물 집산기능과 농산물 시장을 겸한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새롭게 단장된 ‘천관산 관광시장’은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부지 5337㎡에 ▲상설 점포 ▲5일 시장 점포 ▲노점 ▲할어센터

및 식당을 겸한 수산물센터 등 모두 110개 점포가 들어섰다.

특히 도립공원 천관산을 찾는 관광객과 장흥~제주 쾌속 여객선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1900여명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여서 앞으로 정남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토요시장과 차별화된 천관산 관광시장은 값싸고 싱싱한 수산물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 키조개 활용 흑진주 생산 기술 개발

장흥 특산물인 키조개를 활용해 흑진주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수산기술사업소 장흥지소에 따르면 총 1억2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지선에 서식한 키조개 생식소에 핵을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상품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원형과 반원형의 흑진주 16개를 시험생산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키조개 양식어장에서 시험 중인 흑진주 수는 ▲2009년 원형 1028개 ▲2009년 반원형 505개 ▲2010년 원형 406개 등 총 1939개로 10월까지 생산될 예정이다.

수산기술사업소 장흥지소 16개 시험 생산 성공

양식어장에서 1939개 10월까지 추출...산업화 박차

흑진주 양식은 원형과 반원형 2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원형’ 형이 생식소 절개과정에서 폐사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업계는 반원진주에 산업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키조개 반원형 흑진주 생산과정은 성패의 키조개를 채취해서 2~3시간 음지에 노출후 키조개 폐각막을 열어 폐각에 진주핵을 부착시켜 1~2년 양식하면 코팅된 13~14mm 크기의 흑진주가 생산된다. <사진>

수산기술사업소측은 흑진주 가공 및 상품감정·경영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안양면 수문·용곡 키조개 양식어민들에게 키조개 흑진주 양식기술 지침서를 발간 배부하고 핵 삽입 기술이전과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기술사업소의 이 같은 흑진주 시험생산은 경남 통영에 있는 ‘아오야’ 진주 박물관으로부터 진주물질 분비의 최적화를 위한 핵 삽입위치를 방법, 진주핵 크기 모양에



대한 기술 도움을 받았다.

키조개는 득량만(장흥·보성·고흥)에서 서식하는 일반 패류에 비해 우수한 진주물질이 분비되는 특징을 지닌데다 다른 진주 양식기간인 3~4년에 비해 1~2년이면 생산이 가능해 부가가치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전망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다문화 요리강습

고흥군 다문화센터(센터장 류형식)는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주부를 대상으로 초빙해 월남쌈·스파게티 등 요리강습을 실시했다. 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지복선씨 ‘청자상감전통문명’ 대상 강진청자 공모전



강진 청자박물관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에서 지복선(52·경기도 이천시) 씨의 ‘청자상감전통문명’(사진)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또 전통 부문은 이기성(경기도 남양주시)씨의 ‘청자연리문정시’, 디자인 부문은 이동하(경기도 김포시)씨의 ‘청자삼죽향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눠 사진으로 접수된 216명 278점 중 1차 합격한 99명 청자 117점에 대해 조형적 조화와 세련, 기술적 완성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한편 입상작들은 오는 8월 7~15일 열리는 ‘제38회 강진청자축제’ 기간동안 강진 도예문화원 2층 특별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

백운주조는 앞으로 까다로운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과 함께 철저한 수출시장 조사를 병행, 생산량과 수출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내수시장은 추석명절 때목을 겨냥해 홈플러스와 이마트·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 판매할 계획이다. 백운주조는 일본시장을 겨냥해 지난 2008년 3월부터 매실막걸리 개발에 나서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매실 막걸리는 전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석류 막걸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각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근 대표는 “저온 장기 발효방식의 매실막걸리는 여성층과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강조한 웰빙 막걸리”라며 “숙취 및 잡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수기자 choug47@】

효성공인중개사
학원 매매
서구최고요지 (현성업종)
요리,제과,제빵 (국비지원)
3층학원·실평수 100평
광주최고시설
매매가 보증금 5천만 포함
총 3억원 (절충가능)
7월 23일
이내만 매매가능
공장 매매
평동공단내 2번도로점
• 대지 3305㎡ (1050평)
• 건물 1983㎡
• 공장총고높이 : 6m~8m
• 호이스트 없음 (설치가능)
• 전기 : 300kw
• 매매가 : 13억원
전자조립, 물류창고
기타제조업 적합
011-602-4207
☎ 521-8024 (FAX)521-8028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V오피스 유희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상업, 문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T.881-5688 H.011-601-8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인생 열쇠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 도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는 분
■ 이유없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병고로 시달리시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이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062-383-8982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믿음 공인중개사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00평, 150평, 134평, 100평 매도 다량 보유
● 구합 : 광주지역 상가건물 15억~20억 사이
● 구합 : 광주 첨단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 구합 : 하남공단 대지 500, 1000평 건물 300, 500평
■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 상업지역토지, 모텔부지, 상가건물 모델,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변화기 : (롯데점 약 60평 임대)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827-0878 (첨단 세종로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특별분양(할인 9~28% 적용)
<층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률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 (구, 33평) 로얄층 / 164㎡ (구, 49평) 로얄층
191㎡ (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 (구, 43평) 로얄동 / 로얄층
▶ 112동 10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102호 ▶ 113동 1204호
▶ 112동 1201호 ▶ 113동 1404호
▶ 112동 1202호 ▶ 114동 11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4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 주변 쇼핑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기대 상승기대
입주민들의 친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062) 367-1232 / H.P 010-2587-8552